

열처리시설 확산 난립, 문제점 발생 우려

(주) 진 성 산 업
차 장 흥 진 기

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목재포장재 추세는 자국의 수입규제와 환경보호, 통상이익을 위해 무기처럼 사용되는 추세이다. 한마디로 총성 없는 전쟁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.

지난 2월 초 중국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제(2월20일 대 중국수출 선적분 목재포장재)가 그 단적인 예라 볼 수 있다.

기존의 MB(훈증) 방역을 완전히 배제하고 단 기간 내에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규정을 고집하는 중국의 뻣뻣한 통상 자세는 대 중국수출업체는 물론, 대부분의 영세한 수출포장업체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.

하지만, 각국의 환경보호와 고급화 되어 가는 포장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 본다.

그동안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던 수출업체들은 플라스틱 소재나 철재, 종이 등의 비목재 포장재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, 목재와 비교했을 때 높은 단가를 비롯해 세계각국의 환경규제 등을 감안하면 결코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.

현재 전국적으로 110여개(3월31일 현재)의 업체가 국립식물검역소의 열처리시설 인증을 받아 목재열처리를 실시하고 있다.

국립식물검역소의 중국 열처리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수출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완벽한 규정 정립이 필요하며 난립되는 열처리시설의 확산이 차후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지는 않을까 우려된다.